



# 평화를 가득 담아주세요

## 제주 강정 책마을로 보냅니다



젊은 문화기획자 그룹 '105-28 청춘네트워크'  
 푸른길 도서관 등 책 정거장 마련... 10월7일까지  
 시인 나희덕·화가 한희원 등 예술인들 동참



지난 4월 제주 강정마을에 문을 연 첫번째 책방인 '평화책방'.

제주 강정 마을은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7년 해군 기지 건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강정마을에는 많은 생체기가 남았다.

치유가 필요했다. 해군 기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과 상관 없이 갈라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소통하기 위한 작업에 뛰어든 이들은 작가들이었다.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제주에 공간을 마련하고, 책을 보내 '평화책방'을 열었다.

시인 김선우와 함성호, 소설가 전성태 등 문인 40여명은 지난 6월 아예 '강정 평화책마을 십만대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일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책을 모아 헌장, 경로당 등 동네 구석구석에 작은 책방을 열어 강정마을 전체를 '책마을'로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가 독자적인 이벤트를 통해 강정평화책마을에 힘을 보탠다. 이를하여 '광주일만대권 프로젝트'다. 강정마을에 보낼 책 1만권(최소 5000권)을 모으는 행사로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들은 광주 지역 젊은 문화기획자 그룹인 '105-28 청춘네트워크'다. 수시로 만나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분쟁과 평화, 화해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주시민들이야말로 평화 책마을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춘네트워크는 우선 책을 모으는 책 정거장을 마련했다.

양림동에 위치한 (주)쥬스컴퍼니(070-4239-5040)가 광주중앙책정거장이 되고 교육문화공동체 결 사무실

(062-432-1318), 광주청소년문화의 집(062-375-1324), 푸른길 작은 도서관(062-674-1318), 원담숲 어울마루 작은 도서관(062-959-8525),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3) 등 지역 곳곳에 책 정거장이 들어섰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책 정거장을 찾아 책을 전달하면 된다. 20권 이상일 경우에는 박스 포장 후 작별 택배를 이용, 105-28 청춘네트워크(광주시 남구 양림동 105-28)로 보내면 된다.

단체나 기관의 경우에는 청춘네트워크 사무실로 직접 보내줘도 되고, 연락을 하면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모아진 책들은 오는 10월17일 장흥항에서 제주 강정마을로 보내진다.

최소 목표인 5000권이 모이면 지역 최초 소셜 펀딩 사이트인 '마이멤'(www.mymeme.co.kr)을 통해 운송비(약 350만원 예정, 현재 펀딩중)를 본격적으로 펀딩할 계획이다.

또 책에 라벨을 부치고 박스를 포장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그밖에 책을 기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책을 보낼 수도도록 자신의 가게나 책 모으기에 알맞은 장소를 대상으로 책 정거장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나섰다. 시인 나희덕(조선대 교수)씨는 오는 27일 양림미술관에서 '평화 시콘서트'를 열어 화가 한희원씨는 9월께 '희망콘서트'를 열어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정책마을 십만대권 프로젝트(cafe.daum.net/100000book), 평화책방(www.gangjungpb.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경택 작 '장발 미니스커트 싫어요'(1970)

## “그땐 그랬지”

광주시립미술관, 11월3일까지 '순백의 기록'전

'광주·전남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5·6 전시실에서 오는 11월3일까지 광주·전남 사진계를 조명하는 '순백의 기록-광주·전남사진의 토대(土臺)를 보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작고한 고(故) 김흥인, 송진화, 신복진, 오종태, 이경모, 이진권, 최병오씨를 비롯해 원로작가 강봉규, 나경택, 문병오, 박종길, 박하선, 오상조, 장기철, 정영욱, 차일현씨 등 광주·전남 사진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친 작가 16명의 흑백 사진 65점이 전시된다.

특히 고(故) 이경모씨가 중군기자 시절 사용했던 카메라와 오지호 화백이 제자인 고(故) 최병오씨의 첫 개인전에 보낸 친필 서한, 작고 작가

스크랩북 등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광주·전남 사진의 출발시점인 194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상과 역사적 사건들, 생활 풍물 등을 다뤄온 사진으로 기록한 사진과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은 작품들이다. 기술적으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작품들은 순백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는 크게 '오래된 풍경, 살아있는 기억' '시대의 기록, 보도사진' '리얼리즘, 삶을 담다' '화두를 쫓는 여행' 등으로 구성됐다. 매주 월요일과 동아시아문화관광회의가 열리는 9월5~6일은 관람이 제한된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내일 이산하 시인 문학특강

광주문화재단은 1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립미술관에서 '한라산' 시인 이산하씨를 초청해 '작가의 삶과 시적 대응'이란 주제로 여름문학특강 세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시인 이산하씨는 1980년대 초반 장편 시 '존재의 놀이'로 등단했다. 그를 세상에 알린 것은 제주 4·3항쟁을 그린 장편서사시 '한라산'이다. 1987년 3월 '녹두서평' 창간호에 실린 '한라산'은 엄혹한 시기, 격정적이고 선동적인 목소리를 담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 시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구속됐고 '녹두서평'의 필자들 역시 모두 수배되는 '한라산 필화사건'을 겪게 된다. 시집 '천둥 같은 그리움으로', '한라산', 편역시집 '체 게바라 시집', 성장소설집 '양철북', '적발보궁 가는 길' 등이 있다. 문의 062-670-7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